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올여름, 유난히도 덥고 습한 여름을 보냅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유럽 한쪽은 올림픽과 휴가로 축제와 피서를 즐기고, 또 다른 한쪽은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은 없는 일인 듯 살고, 저도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느덧 여름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2024년 두 번째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길 기도합니다.

사역

현지 사역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해졌던 육신은 사역함에 있어 자아의 힘을 빼게 하고, 내가 주인이 아닌 청지기임을 다시 확인케 합니다. 그동안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탈진과 침체에 빠져있음을 알았고, 이제야 조금씩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을 기억하면 많이 아팠습니다. 육신뿐 아니라 마음도, 정서도, 영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다시 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생명에 감사하고, 가족과 동역자와 후원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 학교

지난 기간 여러 변화 속에서도 은혜롭게 운영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블라즈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학교를 사임한 후라 우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든든하였습니다. 학기 종업식 때에 학생들로부터 받은 감사와 응원은 저희에겐 값진 선물이었고, 학교 사역에 용기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직장 일로, 블라즈는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였습니다. 비록 학교에서는 보지 못하나 그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우리의 수고가 언젠가 구원의 열매를 맺길 기도합니다.
키아라는 두 사람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려는 듯 더 열심을 내고 헌신적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던 블라즈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반면 무신론자 다비드는 우리 곁에서 경청하며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합니다.
9월에 새 학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길 기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이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봄학기 종업식(6월)

학생들과 함께

봄학기 소풍(5월)

키아라, 다비드

2) 교회

한동안 한인 예배가 중단되었기에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졌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그레브에 더 이상 한인 예배가 없어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가 다시 드려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영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30일 주일, 저희는 창립 13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9주년 이후 4년이라는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작고 약했지만, 감사했습니다. 마치 허리케인으로 무너진 집터에 다시 돌아와 한 장의 벽돌을 쌓는 기분입니다. 어떤 벽돌은 날아갔고, 어떤 벽돌은 깨어져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듯 하나 소망 중에 감당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2017년에 인접국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 한인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수고가 2024년에서 움이 틉니다. 슬로베니아에 PCK 선교사님 가정이 새로이 들어오면서, 류블랴나 한인교회가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두 교회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그레브 교회 주일예배 시

류블랴나 교회 주일예배 후

3) 발칸의 한인 선교사들

발칸 지역에는 5가정의 PCK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불가리아를 제외하곤 한 국가에 한 가정씩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을 잃고 깊은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졌었습니다. 안식년 후 돌아와 둘러보니 그게 주변

선교사들에게도 실제적, 잠재적 위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발칸 지역의 PCK 선교사들과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 고립되지 않게 상호격려와 위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를 위해 소소한 일들을 실천하고 있으니,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PCK 목회자 대회 참석과 로잔대회 크로아티아 현지 대표단 영접, 한국 방문

이번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PCK 한인교회 목회자 대회에 자격 없는 저희가 초청받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기간은 3박 4일의 일정이지만, 한국 체류는 9월 8일부터 10월 1일까지 3주가량 머무를 예정입니다. 체류 동안 로잔대회에 참석하는 크로아티아 교회 대표단을 충신교회와 함께 영접하려 합니다. 크로아티아 현지교회 대표단이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PCK 교단과 좋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PCK 목회자 대회를 통해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그 외 소식들

크로아티아 군선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5월 드라젠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4 PSF(Public Servant Forum)에 초대를 받아 제게 문의하였습니다. 주최 측을 확인하니 박옥수 계열의 IYF에서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단 교회들의 적극적인 포교로 크로아티아 신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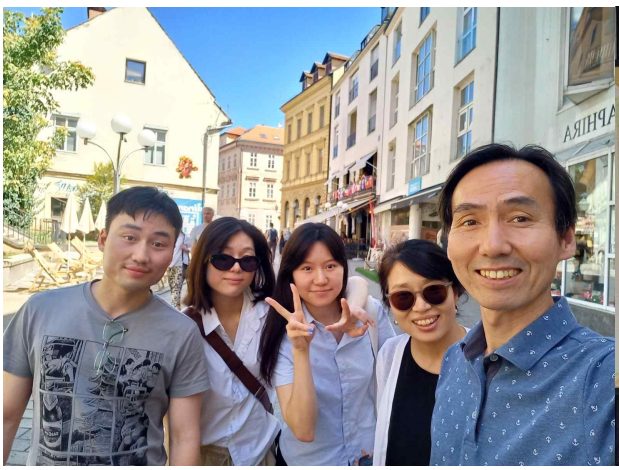
마테이가 프랑스 테제(Taize)에서 또 엽서를 보내왔습니다. 짧은 엽서에는 그의 사랑과 그리움, 위로가 묻어져 있습니다. 마테이를 통해 주님이 격려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9월 한국 방문 시 크로아티아 현지 사역은 우크라이나 홍남기/김인규 선교사님이 섬겨주십니다. 선교사님 내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체류 동안 저희는 선교사 안식관(일산 소재)에서 머무를 예정입니다. 만남을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조율하여 찾아뵙겠습니다. 다만 체력이 아직은 약하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가정

김 선교사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시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받길 기대합니다. 문 선교사는 김 선교사와 곁에서 한결같이 돕는 자로 있습니다. 아들 이삭은 지난 7월 15일에 1년 6개월의 군 복무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큰딸 영은과 막내 영진은 여름 방학 동안 자그레브 집으로 돌아와 쉼을 얻고, 마지막 대학 4학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선교사 가정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가을학기 학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3.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4. 로잔대회에 오는 현지 대표단이 한국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게 기도해 주십시오.
5. 발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 크로아티아와 주변 국가 현지교회에 한국 이단이 침투 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7. 크로아티아 군 선교회와 드라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 한국 방문하는 동안 모든 만남과 교제에 기쁨과 위로가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3:14~15)

2024년 8월 27일
자그레브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 올림.